

구조가 조금만 빨랐다면 소중한 생명은 구할 수 있었다

◎ 마지막이 될 줄 몰랐던 폐촉매 제거 작업

협력업체 소속 일용작업자 A씨(56세, 경력 5년7월)는 반응기 내부 폐촉매 제거작업을 하다 경사면에서 흘러 내려온 폐촉매에 가슴까지 매몰된 후 2시간 20분이 지난 이후에 구조되어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폐놀에 의한 급성중독으로 사망하였다.



사고 반응기

◎ 폐촉매 제거 작업의 위험을 모른 채 작업을 진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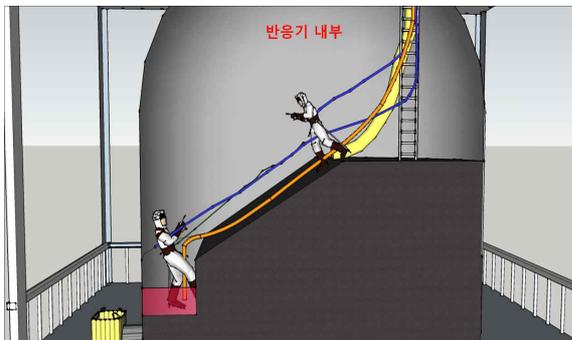
사고 반응기는 비스페놀-A를 생산하는 공정의 반응기로 촉매 뭉침의 원인이 되는 비스페놀-A를 제거하기 위하여 사고발생 6일전부터 반응기의 상부 맨홀과 측면부 맨홀을 개방하고 측면부 맨홀을 통해 폐촉매 제거작업을 수행하였다. 측면부 맨홀에서 폐촉매 제거작업 중 촉매뭉침 현상으로 작업이 진행되지 않자, 상부맨홀을 통해 직접 반응기 내부로 들어가 폐촉매 제거 작업을 하였다. 하지만 A씨는 밀폐공간작업 안전교육도 받지 못했고 취급물질의 독성에 대한 위험성도 모른 채 작업을 진행하였다.

◎ 구조가 조금만 빨랐다면 소중한 생명은 구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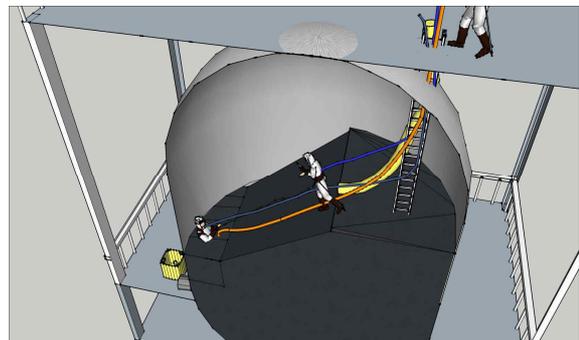
사고발생 당일 아침 A씨가 반응기 내부로 출입하여 폐촉매 제거작업을 하던 중 폐촉매에 무릎이 매몰되었다. 이를 본 동료작업자 B씨는 곡괭이와 삽으로 폐촉매를 파내고 A씨를 들어 올리려고 여러번 시도하였지만 허사였다. 2시간 이후에도 구조가 되지않자 119에 신고를 하고 발주처 관리감독자 2명이 반응기 내부로 들어가 안전대를 A씨에게 걸고 전동 원치를 당겨 맨홀 밖으로 내보냈다. 이후 119응급 처치 후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A씨는 결국 사망하고 말았다.

◎ 안전작업 준비가 되지 않는다면 누구나 이런 사고를 당할 수 있다.

화학공장에서 정비·보수 작업을 할 때에는 작업에 대한 위험성을 파악하고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을 해야 한다. 작업계획단계에서 위험성에 대해 파악을 하고 그 위험을 제거하여야 한다. 사고발생 시 비상대응, 응급의료 및 환자후송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사고는 나의 일이 될 수도 있다.



최초 무릎까지 매몰된 재해자



구조 중 가슴까지 매몰된 재해자